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- WSJ: 미 소비자들 연말에 지출 늘렸다
- Bloomberg: 연준 이사, “금년 금리 인하 신중하고 체계적이어야”
- FinanceYahoo: 연준, 금리 인하 언제쯤… ‘3월에 0.25%’

[금융]
- JP 모건: 워싱턴 정책 회의 결과 : 연준과 싸우지 말라
- WSJ: 중앙은행들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지만 시장은 달라

[미국 생활]
- WSJ: 미국인들 더 오래 살지만 ‘건강 수명’은 줄어

[주택]
- CNBC: 모기지 은행 협회, “총 모기지 신청 건수 전주 대비 10% 이상 상승”

[오일]
- Bloomberg: OPEC “ 2025년도엔 원유 수요가 공급을 추월한다”

[물류]
- WSJ: 분쟁 겪었던 캘리포이나 항만들, 수입 회복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- Bloomberg: 샌프란 연방은행, “원격근무가 산업 생산성 성장에 큰 영향 없다”
- WSJ: 현대자동차 충칭 공장, 절반 가격에 매각되다
- CNN Business: 코스트코, 입장시 멤버십 확인 강화 시스템 도입

[보고서]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WSJ: Consumers Start 2024 on Strong Footing After a Jolly Holiday
미 소비자들 연말에 지출 늘렸다

- 미국인들이 연말에 소매점, 자동차 딜러, 온라인 구매 등 지출을 늘려 소비자들이 올해 경제 성장도 계속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.

- 오늘 수요일 연방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2월 미 소매 판매가 계절조정치로 전월에 비해 0.6% 상승했다. 예상치 보다 높았다. 11월은 전원에 비해 0.3% 상승했다.

- 전문가들에 따르면 계속 상승하는 임금과 인플레 둔화가 소비자의 구매력을 키우는 것으로 분석됐다.

WSJ 기사

Bloomberg: Fed Can Cut Rates This Year Absent Inflation Rebound, Waller Says
연준 이사, “금년 금리 인하 신중하고 체계적이어야”

- 연준 이사인Christopher Waller는 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 화상 미팅에서 “올해 인플레 둔화에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에 신중하고 체계적인 (Systematic)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- 그는 당초 금리 인하에 수용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올해 여섯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반하는 입장으로 보인다. 한마디로 빠르게 인하 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.

Bloomberg 기사

FinaceYahoo: When will the Federal Reserve start to cut interest rates?
연준, 금리 인하 언제쯤… ‘3월에 0.25%’

- 연준 관리들은 작년말 마지막 회의에서 거의 2년에 걸치 인플레와의 싸움이 결국 막을 내렸다고 시사했다.
-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올해말까지 금리가 4.6%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- 내년에는 0.75% 포인트, 그리고 2025년과 2026년에도 추가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.
- 그런데 연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트레이더들은 3월 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. CME Group의 FedWatch에 따르면 약 71.4%의 투자자들이 3월에 최소 0.25%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FinanceYahoo 기사

[금융]

JP 모건: Washington Policy Perspectives - Don’t Fight the Fed
워싱턴 정책 회의 결과 : 연준과 싸우지 말라

- 시장이 너무 멀리 또는 너무 빨리 움직였을 수도 있다. 그러나 미 핵심 인플레가 거의 2%로 근접하고 있다는 확률이 2%를 현재 크게 상회하는 상황과 같은 확률과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은 없다.
- 미 경기 침체 우려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인플레 둔화가 높은 생활비용의 고통을 줄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‘나쁜 분위기’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.
- 연방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도전으로 의회의 교착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. 이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반중 및 반독점 입법안이 진전될 가능성은 줄어든 상태다. 연방 자금 지원은 3월 1일까지 연장된 상태다.

-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에 대한 목소리는 덜 대립적인 상태가 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국내 문제와 정책을 가장 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.
- 중립적인 분석가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에서 유리한 상황에 있는 반면에 의회는 양분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.
- 중립적인 분석가들에 따르면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시장의 예상보다도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. 국내 및 외교정책에서 강경 노선을 걷을 수 있다는 것.
- 미국, 유럽과 현대화 하고 있는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/하마스 전쟁의 격화 움직임을 막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에너지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현재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.
- EM 국가들은 경제가 회복력이 있지만 자본 흐름에 대한 전망을 낙관하기는 어렵다.
- 신흥국 고수익 투자 기회와 관련해 터키나 우크라이나 보다는 라틴아메리카가 선호되고 있다

JP 모건 기사

WSJ: Markets Expect Rate Cuts Soon. Central Banks Say Not So Fast.
중앙은행들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지만 시장은 달라

- 연준 이사Christopher Waller와 유럽중앙은행 정책 결정자들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.
- 그러나 시장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은 부양책을 가격에 반영했으며, 신중한 인하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.
- 투자자들이 금리를 예상하는 지표 역할을 하는 이른바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 선물 선물 금리는 향후에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0.25%씩 여섯차례, 연준은 금리를 6~7 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WSJ 기사

[미국 생활]

WSJ: Americans Are Sick for More of Their Lives
미국인들 더 오래 살지만 '건강 수명'은 줄어

- 워싱턴 대학의 관련 연구소에 따르면 평균 건강 수명은 1990년에 85.8%에서 2021년에 83.6%로 줄었다.
- 이같은 이유는 의학 발달로 예전에 죽을 수 있는 질병을 찾아내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비만, 당뇨, 약물 사용 등이 특히 젊은층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.

WSJ 기사

[주택]

CNBC: Mortgage demand surges more than 10% as lower interest rates lure homebuyers
모기지 은행 협회, "총 모기지 신청 건수 전주 대비 10% 이상 상승"

- 모기지 은행 협회(MBA)에 따르면, 총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10.4% 증가했다.
- 평균 30년 만기 고정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6.81%에서 6.75%로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 3주간 가장 낮다. 때문에,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모기지 대출 건수가 약 9% 상승했다.
- 주택담보대출 재융자 신청 건수는 전 주 대비 11% 올랐다.

CNBC 기사

[오일]

Bloomberg: OPEC Sees Robust Oil Demand Next Year in First Look at 2025
OPEC " 2025년도엔 원유 수요가 공급을 추월한다"

- OPEC이 글로벌 원유 수요가 내년도에 계속 증가할 것이며, 공급을 추월할 것이라 전망했다.
- 내년엔 중국과 세계 경제가 회복하면서, 세계 하루 평균 1백80만 배럴의 견조한 수요 성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.
- 그러나, 사우디와 그 동맹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면, 2025년 말까지 원유 시장은 적자일 것이라 보고 있다.
- 이 기관은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가 하루 2백25만 배럴까지 증가해, 사상 최고치인 하루 1억4천 4백36만 배럴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한다.

Bloomberg 기사

[물류]

WSJ: California's Long-Embattled Ports Are Winning Back Imports
분쟁 겪었던 캘리포이나 항만들, 수입 회복

- 미 수입 업체들이 남가주 항만들을 통한 수입 활동이 회복되고 있다. LA항만과 롱비치 항만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.

- 그동안 팬데믹으로 운송 차질과 걸프 연안과 동부 항만으로 이동시켰던 공급망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.
-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 두개 서부 항만의 컨테이너 수입량이 지난해 9월, 10월, 11월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 17%에서 31% 증가했다. 같은 기간 조지아 사바나항만과 뉴욕항만 등 동부 연안항만들의 경우 수입량은 감소했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Bloomberg: Remote Work Doesn't Seem to Affect Productivity, Fed Study Finds
샌프란 연방은행, "원격근무가 산업 생산성 성장에 큰 영향 없다"

-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조사에 따르면, 원격근무가 산업 생산성 성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조사자들은 화학 제조업, 소매업,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 등 43개의 산업 생산성 추세를 조사했다.
- 그 결과, 팬데믹 이전과 원격 근무가 증가했던 팬데믹 이후의 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WSJ: Hyundai Sells China Plant for Half Price
현대자동차 충칭 공장, 절반 가격에 매각되다

- 현대 자동차가 충칭의 자동차 공장을 절반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각했다. 이는 중국에서 사업을 간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.
- 현대 공장이 Yufu Industrial Complex Construction이라는 기업에 2억2천5백90만 달러에 매각된 것이다.
- 이번 매각으로 인해 중국 내 현대의 자동차 공장은 5곳에서 3곳으로 줄었다.
- 현대 자동차는 중국 내 부진한 매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.

WSJ 기사

CNN Business: Costco is testing out a new system for entering stores
코스트코, 입장시 멤버십 확인 강화 시스템 도입

- 기존엔 코스트코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더라도, 타인의 멤버십 카드를 이용해 코스트코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어려워 보인다.
- 코스트코는 최근 단속을 위해 무인 계산대에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멤버십 카드를 요구하기 시작한 바 있다.
- 이제는 단속을 강화해, 입장할 때에도 멤버십 카드를 스캐너에 스캔해야 입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기존에는 종업원이 카드의 소지를 확인했다.
- 코스트코는 이런 변화가 매장 입장과 계산의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라 말했다.

CNN Business 기사

[보고서]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27년까지 美상업용건물 대출 3천조원 만기…"디폴트 급증 우려"

피치,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 올해 4.5%, 2025년 4.9% 예측

2027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3천조원에 육박하는 미국 상업용부동산 대출 중 상당 규모가 고금리 차환 압박에 직면해 채무불이행(디폴트) 급증 우려가 나온다고 월스트리트저널(WSJ)이 16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

부동산정보 제공업체 트렙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를 맞은 오피스빌딩과 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 대출액은 역대 최대인 5천410억달러에 달했다.

만기 대출금은 계속 증가해 현재부터 2027년 말까지 2조2천억달러(약 2천960조원)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, New York, NY 10022

Unsubscribe office@kocham.org

Constant Contact Data Notice

Sent by office@kocham.org